

고1·고2·고3 다른 입시... 맞춤형 전략 세워야

3학년 - 역대 최대 규모 수시모집·꼼꼼한 대입 로드맵 설정을
 2학년 - 2015 개정교육과정 첫 적용·수능은 계열 구분해 치러
 1학년 - 2022 수능 개편안 적용·생기부 기재방식 대폭 바뀌어

올해 고등학교 교실은 학년마다 서로 다른 입시환경으로 바뀐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 개정교육과정의 마지막 입시를 치르게 되는 고3,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고2,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적용 및 대폭 바뀐 수능개편안 적용을 받는 고1 교실은 저마다 다른 입시 환경에 놓였다.

광주시교육청 진학팀의 조언 아래 신학기 학년별 입시 전략을 점검해 본다.

◇3학년 입시 전망= 현재 고3 학생들은 재수생 증가·역대 최대 규모의 수시모집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올해 고3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수시전형뿐 아니라 정시까지 지원패턴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불수능으로 인한 재수생 증가, 역대 최대 규모로 모집하는 수시모집

이 입시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전형별 유휴리 판단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학생들은 당장 3월부터 수시 지원 유형부터 희망대학, 학과 등 선택의 연속이므로 본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수시전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새 학기 시작 전 꼼꼼한 학생부 점검과 내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구체적인 대입 로드맵을 설정하는 게 좋다.

2학년 때까지의 학생부 성적과 수능 모의고사 성적 및 비교과 영역과 관련된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어느 대학 어떤 전형이 자신에게 맞는지 잘 따져서 가장 유리한 전형 유형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수시전형에 대비하여 교내 시험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며, 수능최저 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에도 적극 대비하여야 한다.

◇2학년 대학입시=현재 고2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첫 적용을 받는 학생들이다.

고2 학생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지만, 수능 개편안 유예로 수능은 2020 입시를 치르는 고3학생과 같은 방식으로 계열을 구분해 치르게 된다.

많은 논란이 있었듯이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가 일치하지 않는 학년이다 보니 혼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발표대로 수능위주전형의 확대 유도를 통해 정시모집 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2 학생들은 변화하는 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본인 희망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과 함께 증가하는 정시에 대한 대비 또한 병행해야 할 것이다. 2학년이 되어서 새롭게 접하게 될 선택 과목에 대한 사전 준비와 어떻게 학생부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

수시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흔들림 없이 내신 성적과 학생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은 부족한 과목에 최선을 다하여 내신 성적을 향상시켜야 한다.

◇1학년 대학입시 변화= 현 고1은 2022 수능 개편안의 적용을 받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도 대폭 바뀐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수능위주의 전형도 늘어나기 때문에 수시모집으로 입시준비를 고집하기 보다는 수능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2022학년도 입시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율 확대이다.

학생들의 제도전 기회를 위해 정시 수능 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 확대될 예정이다. 2022학년도 대입에서 대입 전형 서류 개선 등의 변화가 있다. 자기소개서 양식이 변경되며 교사추천서는 폐지된다. 글자수 제한에도 변화가 있다. 자기소개서 글자수가 줄어들었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적으로 잘 담아내야 한다. 또한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적성 전형이 폐지된다.

구체적인 입시 요강은 아직 발표되어 있지 않다. 대학 입학에서는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실질적인 수시 준비는 고1부터라고 생각하고 내신 및 비교과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전남교육청,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대상

전남도교육청은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교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전년도 대비 8만 7,000원이 인상된 20만 3,000원을 지원 받는다. 중·고등학교생은 12만 8,000원이 인상된 29만원 지원 받게 되며, 고등학교생은 추가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시지역 등(洞)단위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도 종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교육급여 신청을 위해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교육비 윌클릭(www.oneclick.moe.go.kr) 또는 북지리온라인(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콜센터(보건복지부 129), 전남교육청(061-260-0100, 0076)으로 하면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조선대 ‘파란사다리 사업’ 선정

2019 호남·제주권 주관대학 교육부, 4억4000만원 지원 학생 80명 해외 파견 연수 계절학기 3학점 인정

조선대학교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2019년 ‘파란사다리’ 사업에 호남·제주권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

파란사다리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기 개발과 진로 개척에 꿈과 열정을 가진 대학생에게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하계 방학기간 중 약 한 달간의 해외 파견 연수와 파견 전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가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 등 핵심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파란사다리사업을 2018년부터 권역별 주관대학을 공모 및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대는 호남·제주권 권역 주관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2019학년도에 약 4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진로 사정교육, 미국·캐나다·호주·말레이시아어학 연수 프로그램 및 사후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선발 대상은 재학생 중 경제적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학생 80명을 선발하며 조선대 학생뿐만 아니라 호남·제주권 타 대학 학생들도 선발인원에 포함된다.

국가별 선발인원은 캐나다(UNBC, 4주) 30명, 미국(University of Florida, 7주) 10명, 호주(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5주) 20명, 말레이시아(Help University, 4주) 20 등이다.

학생들은 귀국 후 개인별 보고서를 제출하면 계절학기 학점(3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교내 취업 관련 프로그램 지원,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연계 및 지원, 교환학생 어학연수 등 국제화 프로그램 지원시 가점을 부여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동신대 입학식 ‘소원 풍선 날리기’ ‘소원 풍선’을 날리고 있다.

동신대학교(총장 최일)는 최근 동신대 체육관에서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소원 풍선’을 날리고 있다. <동신대 제공>

광주시 평생학습관

광주여대 지정

2년간 주민 평생학습 역할 수행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가 광주지역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2019-2020 광주시 평생학습관 지정’에 지정됐다.

평생교육법 및 광주시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에 의거 광주시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평생학습관은 지역 평생교육 거점 기관으로서 주민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평생교육 상담 제공,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평생학습관에 지정된 광주여대는 향후 2년간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평생학습 박람회 참여,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 단체 등과 연계하여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광주여대 평생교육원 박병건 원장은 “대학이 보유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개방해 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광주 지역 대학 중에 유일하게 지정된 만큼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에 광주여자대학교가 앞장서서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 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이제 노안과 백내장을 동시에 해결하세요

신세계안과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

- 기존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낭 절개를 수기로 진행
-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은 3D OCT 통해 안구 상태 실시간 확인
- 안구 스캔 후 자동으로 3D 알고리즘을 통한 정밀 분석
- 3D 펄스레이저 레이저 시스템으로 정교한 수술 가능
- 3차원 입체절개 방식으로 개개인의 정확한 맞춤 난시교정 가능
- 개별 맞춤형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 삽입으로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시력 가능
- 자동 안구보호 시스템으로 수정체낭 파열, 홍채 손상 등 합병증 방지
- 레이저 최소절개 수술로 다음날부터 돋보기 없이 일상생활 가능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